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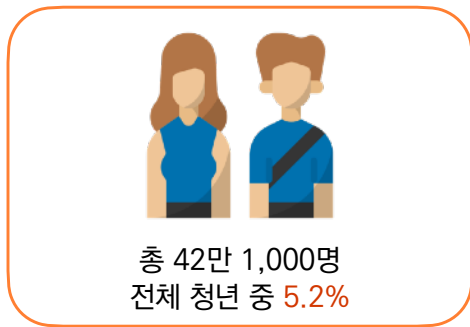


## ['쉬었음' 청년 실태]

# 우리나라 '쉬었음' 청년, 전체 청년(15~29세) 중 5.2%!

- 우리나라 청년 중 '취업이나 진학 준비없이 쉬고 있다'고 응답한 자, 즉 '쉬었음' 청년은 얼마나 될까? 최근 발표한 '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' 자료(고용노동부)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(15~29세)은 2024년 기준 42만 1,000명으로 집계됐고, 이는 전체 청년의 5.2%에 해당된다.
- 이번에는 장기 '쉬었음'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(고용노동부)를 통해 1년 이상 '쉬었음' 청년\*의 특성을 살펴본다. 이들의 평균 쉬 기간은 '23개월'로 2년에 조금 못 미쳤고, 장기 '쉬었음' 청년의 대다수(88%)는 근로소득 경험이 있었으나, 마지막 일자리 근속기간은 '2년 미만'이 73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'쉬었음' 청년(15~29세) 현황  
(2024, '취업이나 진학 준비 없이 쉬고 있다' 비율)



[그림] 1년 이상 '쉬었음' 청년\* 특성



※출처: 고용노동부 별첨 보도자료,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, 2025.01.2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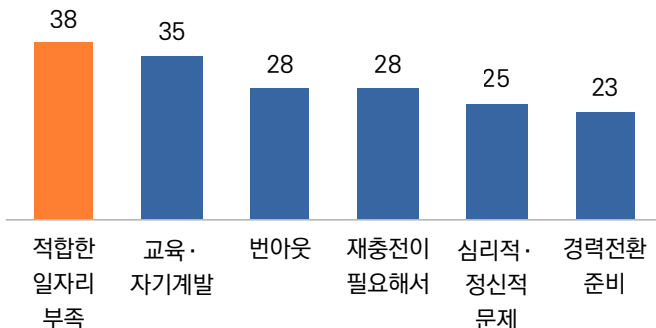
※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장기 '쉬었음' 청년 77%가 불안, 그러나 85%는 '삶에서 일이 중요', 2025.03.11.

\*구직급여 수급·직업훈련(내일배움카드) 수료 후 1년 이상~3년 미만 미취업 청년 3,189명(15~34세)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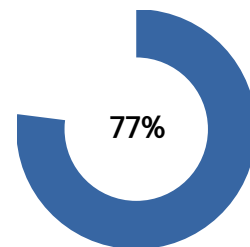
## 1년 이상 '쉽 택한 청년' 77%, '쉬는 상태 불안하다'!

- 오랜 기간 쉬 상태인 이유로는 '적합한 일자리 부족'(38%), '교육·자기계발'(35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, '번아웃', '심리적·정신적 문제'도 각각 28%, 25%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.
- 1년 이상 '쉬었음'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(77%)는 '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'고 응답해 쉬면서도 구직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.

[그림] 오랜 기간 쉬 상태인 이유 (1년 이상 '쉬었음' 청년, 중복응답, %)



[그림] 쉬었음 상태에 대한 불안 정도 (1년 이상 '쉬었음' 청년, '매우+약간 그렇다' 비율\*)



※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장기 '쉬었음' 청년 77%가 불안, 그러나 85%는 '삶에서 일이 중요', 2025.03.11.

\*4점 척도